

會 訓
創 奉 誠
意 仕 實

漁港消息

발행겸 편집인 孫井植 特殊 韓國漁港協會
인쇄인 金在克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05-9
ISSN 1227-7053 TEL.568-6651~2
등록일:1988년2월19 568-5595~6
FAX.568-6653

98년도 어항건설예산 정부안 확정 국회 제출

1,638억8,900만원 규모 전년비 5.2% 증가

완공위주 집중투자 여건변화에 능동 대처

내년도 어항건설예산이 1천6백38억8천9백만원 규모에서 정부안으로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심의 요청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된 내년도 어항건설예산은 농특회계를 포함, 금년대비 5.2%인 80억5천5백만원이 증액된 수

준이다. 이 가운데 제1·3종어항 건설예산은 올해보다 5.9%가 늘어난 1천4백46억3천9백만원이며, 제2종어항은 일반회

계 요구액이 모두 삭감됨으로써 지난해와 동일한 1백92억5천만원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내년도 어항건설은 정비확장을 포함, 계속투자대상 32개항

과 보수보강 28개항 등 모두 60개 1·3종항에 투자할 계획이며, 제2종어항은 50개항에 투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어항 건설사업 목표를 완공위주의 집중투자로 미완공 어항을 조기에 완성, 수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태풍 등 재해방지과 어항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유지보강사업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98 어항예산 정부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97예산(A)	98 예산(안)		증 감		비 고
		요 구	정부안(B)	(B-A)	%	
합 계	155,838	217,010	163,889	8,051	5.2	
일 반 회 계	54,404	102,065	62,455	8,051	14.8	
<제1·3종어항>	54,374	94,008	62,455	8,081	14.9	
○ 시설비	53,134	88,928	61,468	8,334	15.7	
- 계속투자	26,400	46,000	-	-	-	
- 보수보강	26,734	42,928	-	-	-	
○ 부대경비	1,240	5,080	987	△253	△20.4	
<제2종어항>	-	8,000	-	-	-	
- 보수보강	-	8,000	-	-	-	
<경상경비>	30	57	-	-	-	
농 특 회 계	101,434	114,945	101,434	-	-	
<제1·3종어항>	82,184	84,945	82,184	-	-	
○ 시설비	80,156	82,723	80,010	△146	△0.2	
○ 부대경비	2,028	2,222	2,174	146	7.2	
<제2종어항>	19,250	30,000	19,250	-	-	
제1·3종어항 합계	136,558	178,953	144,639	8,081	5.9	

제2단계 농어촌발전계획 수립

孫井植회장, 어항정비사업 반영

신한국당은 대통령후보 정책약 개발과 관련, 9월12일 농림해양수산 관련 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제1차 농어촌정착실천약속을 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한국당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당초 정부안보다 약 1조원을 증액하여 내년도 소요예산 7조8천900억원 전액을 확보함으로써 42조원 구조개선 사업의 조기완성에 대한 농어민과의 약속을 지켰다고 밝히고, 42조원 구조개선 사업에 이어서 계속적인 투자로 농수산업의 경쟁력과 농어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99년에 시작되는 제2단계 농어촌투자사업의 추진을 다짐했다.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수산업과 어항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당초 누락된 제2단계 농어촌 경쟁력 강화의 중점문제 중 '농업기반시설(농업 infra)의 구축'을 '농어업기반시설(농어업 infra)의 구축'으로 수정 반영하고 그 내용에 '어항정비'를 추가시켰다.

제2단계 농어촌발전계획에 어항정비 사업이 포함됨으로

써 98년까지 어항건설에 대한 농특회계 지원에 이어 99년 이후 2천년 대에도 대폭

적인 예산지원으로 어항개발 정비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 될 전망이다.

올해 어항공사 대부분 예정공정 상회 현지점검 시공평가 등 견실시공 만전

올해 어항시공공사는 예년에 비해 빠른 속도로 진행, 9월15일 현재 전체공사진도가 78%에 이르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총 56개항 60건 공사중 지난 15일 현재 김녕항 준설, 금진·읍천·신양항 보강 등 4건이 준공됐으며, 수산·어청도항 등 공정이 80%이상 진행된 곳도 22건에 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어항공사는 지난해에 비해 양호한 기상조건 등으로 공사에 큰 어려움이 없었으며, 거의 모든 현장에서는 실공정이 예정공정을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9월15일 현재 공사진도가

80% 이상인 항은 다음과 같다.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광양항 97.0%, 외포항 94.8%, 삼덕항 86.5%, 신수항 99.3%, 물건항 86.5%, 맥전포항 86.0%, 미조항 97.1%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풍남항 83.0%, 내발항(준설) 87.0%, 초도항 93.0%, 시산항 80.0%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수산항 82.3%, 안목항 93.6%, 금진항 준공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어청도항 86.7%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수품항 86.7%, 소흑산도항 93.4%, 보옥항 100% (23일 준공)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현포항 88.2%, 죽변항 97.6%, 오산항 90.2%, 구산항 91.7%, 읍천항 준공 △제주지방해양수산청 : 김녕항 80.4%, 김녕항(준설) 준공, 신양항 준공.

최근 국내 경기가 다소 침체되면서 직장 생활이 전만 같지 못하자 적잖은 사람들이 "다 때려 치우고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지을까"라고 말을 한다.

불행히도 '어촌으로 돌아가 수산업이나 한 번 해볼까'라는 말은 아직 들리지 않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신세타령으로 한번 해 보는 소리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그동안 외면해 왔던 1차산업으로 회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다. 가까운 일본은 벌써 수년전부터 이런 바람이 불어 많은 사람이 귀향하여 새삶을 시작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농업 뿐만 아니라 수산업쪽에도 사람이 몰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상황은 비슷헌데 왜 우리는 수산업 쪽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적은가. 왜 우리는 일본 못지 않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수산업이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가.

그 이유는 매우 간단 명료하다. 수산업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기반시설이 미약하고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오는 99년부터 시작될 제2단계 농어촌발전계획에 어항정비 사업을 반드시 반영, 어항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만 할 당위성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솔직히 우리나라의 수산업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수산업이다. 그 이유는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결코 풍족하다고 할만한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그나마 물려받은 자원의 보고가 3면으로 둘러싸인 바다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눈을 안쪽으로 돌려야 한다. 좀더 나은 데가 없을까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데 안 일본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바다에 새로운 금을 긋고 여기가 자기네 바다라면서 선수를 치고 나오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다소 늦은감이 없잖으나 2백해리 이내의 수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업 구조조정을 통한 규모의 어업으로 전환하고, 유전·생명공학 등 첨단과학에 의한 양식어업의 발전을 통하여 우리의

바다를 고도 이용해야 한다. 한마디로 신해양시대의 한정된 수역에 적합한 자본 인력을 투입하여 수산자원의 유지·관리를 새롭게 도모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정책은 무엇인가. 두말할 여지없이 어업인프라 즉 어업의 기반시설인 어항어촌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이다. 이는 국토의 합리적인 보존, 국토의 균형개발, 지역경제 및 지역산업의 활성화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엄밀히 말해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완공어항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완공어항이란 최초 어항을 개발할 때 기본계획상에 나타난 방과제 축조 정도를 그렇게 부르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수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방법을 모색하려 한다면 발상을 대전환하여 어촌종합개발의 일환으로 새로운 어항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전국의 어항에 대한 일제 정비사업부터 추진해야 한다. 그저 방과제 축조 정도로 어항을 완공했다고 자위할 것이 아니라 도시에 못지 않은 아름다운 해변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말이다.

그래야만이 산업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촌에 가서 수산업을 해볼까'하는 신조어의 탄생도 가능하게 된다. 바로 이같은 분위기조성이 모두·사랑산업이라고 외면했던 수산업이 국민 산업으로 부상해 '효자'노릇을 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실한다.

어항개발에 대한 농특회계 지원이 내년도 98년에 끝이 난다. 만약 제2단계 계획에서 어항분야에 대한 사업이 제외된다면 천재일우의 호기를 놓치고 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가까운 일본이 아급아급 우리의 수산업 영역을 침범해 오고 있는 것이 이를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머나먼 신기루를 쫓을 것이 아니라 가까운 내 텃밭을 지키는 일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사실은.

이런 점을 깊이 통찰, 99년부터 추진될 제2단계 농어촌발전계획에 어항정비사업이 반드시 포함돼 우리나라 수산업의 새 활로가 열리게 거듭 다시 촉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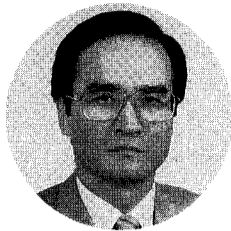
제2단계 농어촌발전계획에 어항정비사업 반영되어야 한다

어항정비사업 반영되어야 한다

동

정

해로연구회 세미나에 참석



조정제 해양수산부장관

▲조정제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9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현충복지회관을 방문 관계자들을 위로, 11일에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해로연구회 세미나에 참석, 12일에는 미국 뉴욕뉴저지항 청장일행의 예방을 받고 양국간 항만관련 협력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9월1일 신한국당에서 개최된 중앙위원회 주요임원 월례회에 참석, 4일에는 하림각에서 열린 신한국당 대표위원초청 중앙위 주요임원 간담회에 참

석, 5일에는 신한국당 당사에서 개최된 신한국당 공약개발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회의에 참석, 이어 강남종합사회복지회관을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 6일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주관 제4회 세계한민족학술회의에 참석, 9일에는 강남보육원을 위문하고 금일봉을 전달, 11일에는 청와대에서 열린 해양수산계 지도자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 이어 신한국당 정책위원회에서 주관한 공약개발위 농업해양수산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 12일에는 신한국당 당에서 열린 농경간담회에 참석하여 농어촌 분야 공약반영사항에 대해 논의, 이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출범식 및 자문위원 상견례에 참석, 20일에는 한국행정학회가 주관한 사회발전

과 정책에 대한 학술발표회에 참석, 22일에는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중앙일보 창간 32주년 기념 4당대표 및 총재 초청 강연회에 참석, 24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가 주관한 특별안보 초청강연회에 참석, 25일 오전에는 수산정책연구회 주관 '적조방재 및 연안어장 오염 대책의 제도에 관한 발표회'에 참석, 오후 2시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주최한 제15회 정신문화포럼 「부정부패를 진단한다」에 참석, 이어 신한국당 공약개발위 농업해양수산분과위 3차 회의에 참석.

▲박종식 수협중앙회장은 9월 4일 축협중앙회에서 개최된 농수축임협중앙협의회회의에 참석, 5일에는 97년도 제2차 전국지회장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 결산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이어 올림피아호텔에

서 개최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창립 10주년 리셉션에 참석.

▲최상욱 남화도건설주식회사 회장은 9월1일 제2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 2일에는 전남농공단지역협의회가 주최한 제3회 상품전시회에 참석, 4일에는 전남 도자문화와 고려청자 세미나에 참석, 11일에는 갯생보호 대상자 생계 보조지원 행사에 참석, 19일에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회 올림피아국제연문상 시상식에 참석, 이어 국제우정의 사절단 광주클럽 환영만찬회에 참석, 22일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열린 제3회 한·일 항만회의에 참석, 25일에는 제25회 남도문화제에 참석.

▲고재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은 9월2일 광주향교 주관 추기 석전대제에 참석, 6일에는 고 설성 김종호 선생 추모비 제막식에 참석.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9월1일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세미나에 참석, 5일에는 한·일 포럼에 참석, 9일에는 한·일 친선협회 정기총회에 참석, 24일에는 경영자총협회 이사회에 참석, 26일에는 21세기 경영인클럽 오찬간담회에 참석, 이어 하이아트호텔에서 열린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세미나에 참석.

▲황금주 동광건설주식회사 사장은 9월19일 한국펜싱협회 이사회를 주재, 23,24 양일에는 한국펜싱선수권대회를 개최.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9월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회의 및 운영위원 직능상임위원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 3일에는 강진청자문화제 개막식에 참석, 22일에는 대한건설협회 전남도 확대임원회의에 참석, 24일에는 광주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8기 출범식을 개최.

▲정운삼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9월19일 진도 곡성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직원들을 격려.

▲장정언 정한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9월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회의 및 운영위원 직능상임위원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 8일에는 제주컨벤션센터 이사회에 참석, 18일에는 서귀포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8기 출범식을 개최, 19일에는 대한적십자사 상임위원회의에 참석, 26일에는 한국정책연구원 세미나에 참석.

▲임제호 삼오종합건설주식회사 사장은 9월5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일 친선협회 이사회에 참석, 9일에는 섬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98년 제주세계섬문화축제 이사회에 참석.

▲송재성 주식회사사흥종합건설 회장은 9월7일 여수 삼천포 공사현장을 방문.

동 그랜드웨딩홀(총신대입구 전철역)에서 화촉을 밝힌다.

이원기 입

▲유상호씨 (하우감리기술주식회사 부장)

이비납부

〈대단히 감사합니다〉

■단체

▲동광건설주식회사(사장 황금주)

▲조흥공영주식회사(사장 박규연)

▲주식회사건일엔지니어링(사장 손일수)

▲한국어선협회(회장 안성봉)

▲포항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정재홍)

▲모슬포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장근호)

▲서산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진태구)

▲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강유삼)

▲거문도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윤덕춘)

▲장항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최병규)

▲마산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임체열)

▲거제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정상옥)

▲인천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차석교)

인사

▲해양수산부 인사 □서기관 전보 △국제협력담당관 박덕배 △원양어업담당관 이용수 △수산가공과장 노승만(8월27일)

□해남심판원 △중앙해남심판원심판관 박재평 △부산지방법해남심판원심판관 조영대 △목포지방법해남심판원심판관 이철환(9월2일)

□부이사관 승진 △기획예산담당관 강무현 □서기관 승진 △감사관실 정태균 △항만기획과 김영복(9월11일)

화촉

▲오순택씨(해양수산부 어업제도과장)의 차남 승훈 군이 10월4일(토) 정오 서울 상록회관에서 화촉을 밝힌다.

▲조사연씨(해양수산부 어촌계획과)의 장녀 성순 양이 10월4일(토) 오전 11시50분 밤배

▲김삼선씨(주식회사대영엔지니어링 부사장)가 9월22일 별세했다.



■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최근 신한국당 농어촌발전기획위원회 및 제15대 대선공약개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

광양등 4개항 배후지에 국제물류센터 건립

총 330만평 규모 내년부터 본격 착수

해양수산부는 광양 등 4개항의 배후지에 내년부터 대규모 물류센터를 건설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한반도를 국제물류거점으로 육성키 위해 광양을 비롯 군장 인천 부산등 4개항 배후지 3백30만평에 내년부터 국제물류센터를 건설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들 4개항에 국제물류센터건설을 위한 기본설계를 최근 완료했으며 연내 실시설계를 추정예산에 반영, 빠르면 내년부터 물류센터건설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지 조성은 정부예산으로 시행하고 물류센터건설은 민간이 맡도록 해 물류센터건설이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항별 물류센터 건설계획을 보면 우선 광양항의 경우 항만배후지 2백만평에 집배송센터와 창고, 도매시설 등이

들어서는 72만평의 대규모 물류센터를 건설해 가공수출단지, 수입, 환적화물처리 등을 망라한 종합물류기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또 각종 항만개발로 서해안 최대의 대외교역항으로 급부상중인 군장항배후지 30만평에 15만5천평의 물류센터

를 건설, 수출입컨테이너 화물의 유통기능을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인천항에는 경인 운하 사도장 39만평과 북항 매립지 18만평, 남항매립지 36만평을 활용해 12만평 규모의 국제물류기지를 건설, 수출입화물처리항으로 개발

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관문인 부산항에는 용당 컨테이너야적장 3만6천평과 양산ICD 컨테이너조작장 1만5천평 등에 1만7천평의 물류센터를 개발해 유통가공, 하역, 보관 등 종합물류기지가 될 방침이다.

장기 대형사업 일괄계약 확대

財政經濟院 SOC투자 재원 확충

정부는 장기 대형사업 집행시 수년간의 공사를 일괄 계약하는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적극 활용하고 사업우선순위를 합리적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비용편익분석 기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조세부담증대를 통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위한 재원을 확충하고 민간유치제도를 보완, 사업자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며 수익성 유인을 제공해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회계제도에 복식부기방식을 도입하고 관리공단 등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며 농업투융자 지원방식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주최

감리수행계획서 착공대 의무제출

앞으로 감리원은 감리절차와 검측방법 등을 정한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착공과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감리원은 검측이나 확인을 받지않고 시공한 건설업체에 대해 공사중지나 재시공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감리와 관련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감리업무 수행지침서'를 이같이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건설교통부는 감리업무 수행지침서 개정을 통해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절차 검측방법 기성준공검사 등을 정한 '감리업무수행계획서'를 착공시 발주기

위를 합리적 객관적으로 심사 평가할 수 있는 비용편익 분석기법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자유치제도가 정부재원 보충 측면에 지나치게 치우쳐 민간의 창의성 도입이 크게 미흡하다고 보고 민자유치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건설공사 각 공종에 대한 감리원의 검측 및 확인을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다음 공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건설업체가 검측이나 확인없이 시공했을 때에는 감리원이 즉시 공사중지나 재시공을 명하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감리업무의 경우 감리전문회사와 발주기관간 계약에 의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발주청과 시공자간 계약서에 감리자 업무를 명시하지 않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발주기관과 시공자간 계약서에 감리업무에 관한 사항도 추가토록 했다.

부실벌점 부과 발주관서장으로 일원화

해양수산부 품질관리규정 등 개정키로

설계심의 자체위원회서 처리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부실이 우려되거나 부실시공이 발생된 항만 및 어항공사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주체를 해당 발주관서장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중앙설계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되던 대형항만공사 등의 설계심의와 입찰방법결정 등을 자체 설계자문 및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키로 하고 설계자문위원회의 운영규정제정을 추진중이

다. 해양수산부는 11일 항만공사의 부실시공방지와 효율적인 항만공사집행을 위해 항만건설공사의 검사 및 품질관리규정을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하는 한편 설계자문 심의위원회 규정을 이달말까지 제정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항만 및 어항공사의 경우 부실우려가 있거나 부실시공이 확인됐다 해도 항만공사 등의

기성 준공검사나 품질검사를 맡고 있는 검사기관과 발주관서장간에 부실벌점부과주체를 명확히 하지않아 부실벌점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앞으로 검사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산·인천청의 검사시험소가 부실점검사항을 통보해 주면 발주관서장이 일률적으로 부실벌점을 부과토록 했다.

또한 그동안 항만건설공사와 어항공사로 이원화 돼있던 기성 및 준공검사업무를 부산 인천청의 조사시험과로

일원화 하고 공사현장의 적정한 품질관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절차 등을 새로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해양수산부는 현재 정부에서 입법예고중이거나 개정된 국가계약법시행령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설계심의와 입찰방법결정 등을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처리토록 함에 따라 자체 설계자문 및 심의위원회를 활용, 이같은 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감천항 유통단지로 지정

종합가공단지 육성 1단계사업 일환

부산감천항이 수산물종합가공단지 육성 1단계사업으로 올해안에 수산물유통단지로 지정, 본격 개발된다.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전용부두개발을 위해 안벽 및 호안 1천4백58m가 완공되면 배후부지 5만1천3백5평이 조성됨에 따라 공공용지 1만8천5백66평을 제외한 3만2천7백92평 규모를 수산물종합가공단지로 조성키 위

해 95년부터 2000년까지 2천7백31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조성된 감천항 배후지를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유통단지 개발 촉진법에 의해 수산물유통단지로 지정하여 조세감면

규제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토지양도 특별부가세, 취득세, 등록세등 각종 세제의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에 비해 3%가 증가했으나 일반해면어류는 53만5천3백84톤으로 17%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어류는 35만4천9백여톤으로 지난해 50만5천3백여톤에 비해 크게 줄었으며 이는 고등어, 정어리, 참조기, 뱀장어 어획이 격감한데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구성비율을 보면 어류가 지난해 46%에서 36%로 감소했고 패류도 11%로 약간 떨어졌으나, 해조류는 지난해 27%에서 33%로, 연체동물은 지난해 대비 59%가 증가해 16%를 차지했다.

해역별 생산량은 동해 9만4천5백48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간 증가 했으며 서해와 남해는 9만1천여톤, 1백9만7

천3백80여톤으로 생산구성비가 감소했다.

어종별로 보면 어류에 있어서 상반기 최대 어획종은 멸치로서 7만9천4백95톤이며, 고등어 4만4천2백42톤, 갈돔이 3만4천7백53톤 등의 순이다.

갑각류는 붉은대게 2만1천3백86톤, 기타게, 꽃게 6천2백23톤 등의 순이며, 패류는 바지락 1만1천2백여톤, 굴 8천2백96톤, 연체동물은 오징어 4만4천2백여톤, 해조류는 톳, 미역이 각각 4천6백9톤, 4천3백20톤 등이다.

한편 연근해의 생산구조비율 변화는 어자원 감소, 환경오염 등으로 천연어류 및 패류 등의 생산비율이 당분간 높아질 전망이다.

건설노임 안정세 평균 4.1% 상승

173개 직종 노임단가 발표 建協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건설부문의 시중노임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대한건설협회가 전국 1천7백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올해 5월 기준 건설부문 시중노임단가 현황에 따르면 노임상승률이 전차조사시점인 지난해 9월에 전체직종은 평균 4.1%, 공사직종은 5.1%에 그쳐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건설부문 직종별 노임은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각종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및 물가연동에 따른 설계변경 등에 적용된다.

임금변동추이를 보면 총 1백73개 직종중 상승은 1백16

개, 하락은 45개였다.

이중 상승폭이 5%미만인 직종이 54개 직종, 5~10%대는 36개 직종으로 전체적으로 10%이하 상승직종이 90개나 돼 지난해 하반기의 80개 직종보다는 높았으나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건협 관계자는 건설노임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도 신규 숙련공의 유입이 안되고 결국 기능인력이 노령화되면서 이에따른 생산성 저하가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며 공법변화에 따라 없어지는 직종 또는 규격화된 제품생산으로 현장에서 사라지는 직종에 대한 대책을 지적했다.

어항청소선 8월중 오폐물 75.3톤 수거 협조체제 구축 청소업무 궤도에 올라

한국어항협회가 관리 운영하는 어항청소선 7척이 지난 8월 한달동안 16개 항에서 7만5천3백kg의 오폐물을 수거했다. 이로써 올 8월말 현재까지 96개 항에서 총 37만6

천9백80kg의 청소실적을 거양한 것으로 집계됐다.

협회가 그 동안 효율적인 어항청소를 위해 전국 연안 시·군 및 일선수협과 협조체제를 구축함에 따라 어항청

소업무는 이제 궤도에 올랐으며, 어항환경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 어업인들의 어항환경정화에 대한 의식이

다소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 앞으로 현지 어항청소선 승선원과 협회 홍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어항환경정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난 8월중 어항청소선별 청소실적은 다음과 같다.

- △어항901호(군산 소재) : 안흥, 군산항에서 7천3백kg
- △어항902호(목포 소재) : 계마, 안마항에서 9천5백kg
- △어항903호(고흥 소재) : 녹동항에서 8천kg
- △어항904호(여수 소재) : 미조, 국동, 남도항에서 1만2천8백kg
- △어항905호(통영 소재) : 능포, 지세포, 광양, 통영항에서 1만5천2백kg
- △어항906호(포항 소재) : 대변항에서 1만1천kg
- △어항907호(주문진 소재) : 금진, 덕산, 주문진항에서 1만1천5백kg 등이다.

어업 생산량 구성비 변화

연근해 어자원이 감소되면서 어업생산량비율구조가 일반해면 어류에서 천해해면양식업으로 전환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올 상반기 어업생산량 조사에 따르면 어업총생산량은 1백76만2천79톤으로 전년동기



■ 한국어항협회가 관리 운영하는 어항청소선 7척이 지난 8월 한달동안 16개 항에서 7만5천3백kg의 오폐물을 수거했다. 이로써 올 8월말 현재까지 96개 항에서 총 37만6천9백80kg의 청소실적을 거양한 것으로 집계됐다.

21세기 복지어촌 세일종합기술공사가 열어갑니다

(株)世一綜合技術公社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新吉1洞 65-106號 中央빌딩 TEL : 831-4411~6, FAX : 831-4417

經營陣 및 技術者

- 代表理事 社長 朱 宰 旭
- 技術士(港灣 및 海岸) 李 竣 煥
- 會 長 李 鎬 淳
- 技術士(道路 및 空港) 申 成 浩
- 副 社 長 崔 圭 明
- (港灣 및 海岸) 申 成 浩
- 副 社 長 崔 圭 明
- 技術士(土 木 施 工) 崔 圭 明
- 副 社 長 崔 圭 明
- 技術士(土 木 施 工) 崔 圭 明



위 암

40대부터 주기적 검진 필요
음식과 밀접한 관계...소금, 탄 것 피해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암사망 원인 제1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암등록소 보고에 따르면 입원한 전체 암 환자 중 남자 암 환자의 30%, 여자 암환자의 18%가 위암 환자로 전체 암환자의 1/3-1/4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위암 전문의는 많지 않다. 매년 1만명이상이 위암으로 사망하고 해마다 약 6만명의 새로운 위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공포의 적' 위암과 싸울 의사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아직 수적으로 태부족인 실정이다.

위암은 환경요인, 특히 식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소금에 절인 생선을 먹는 습관이 있는 한국, 일본, 필란드, 아이슬란드등에서 위암 발생률이 높다는 사실에 주목한 결론이 기도 하다.

그 외에도 태운 음식이나, 비타민 부족, 훈제된 식물, 방부제로 쓰이는 아질산염 등이 원인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유전적인 원인도 무시할 수 없는데 위암 환자의 1세대 자손들에게 위암의 발생률이 높고 A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위암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암이 위의 어디에 생기든지 맨처음에는 점막층에 발생하여 몇 년 동안은 점막 안에 머물러서 발육을 계속한다. 이 시기에는 암이 전이될 염려도 거의 없으며 발견되어서 수술하

면 1백% 낮는다.

그 단계가 지나면 '위가 더 부룩하다, 위가 아프다, 트림이 나온다, 속이 메스껍다'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것만으로 위암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런데 더욱 증상이 진행되면 음식물에 대한 기호가 변하거나 몸무게가 줄어든다. 여기까지 오면 병세가 꽤 악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증상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서는 때를 놓친다. 40세가 지나면 해마다 한 번은 전문의에게 위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최근에 위장 X선 촬영법, 이종조영법, 압박촬영법, 점막촬영법등이 개발돼 조그만 병변까지 발견이 가능하며 위 내시경으로 X선검사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작은 병변까지 발견할 수 있어 진단율이 높다.

따라서 개인적 노력들이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위암 예방 수칙

①황록색 신선한 야채와 과일 섭취를 늘린다.

②균형있는 식생활로 골고루 먹는다.

③된장국을 즐기되 짜고, 맵고, 뜨거운 음식은 삼가한다.

④불에 구운 고기나 절인 생선 식품을 피한다.

⑤술은 매일 마시지 말며 담배도 끊는다.

⑥과로, 스트레스를 피한다.

⑦매일 가벼운 운동과 함께 목욕이나 샤워를 한다.

漁港工事施工管理의 첫걸음

어·항·교·실

(11)

第2章 浚渫工

(2) 어항공사와 소형펌프선
어항의 경우 준설공사의 규모가 비교적 소규모이기 때문에 소형 펌프선이나 마이크로펌프선에 의한 준설공사가 대부분이고, 대형 펌프선에 의한 준설공사는 적다. 따라서 여기서는 소형 펌프선준설선에 의한 준설공사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소형 펌프선이란 대체로 D1350PS(E1000PS)이하의 커터식 관송펌프선을 말하고, 이 가운데서 D200PS 이하의 것을 마이크로펌프선이라 부르고 있다.

소형 펌프선의 형식에는 일반형과 조립형이 있고, 일반형의 이동은 예인선에 의한 회항이 필요하다. 조립형은 소형선에 많고, 대형트럭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분해하여 육상 운반하고 공사현장에서 조립사용할 수 있으므로 하천·호소 등 계선지에서 직접 회항할 수 없는 공사장소로의 이동이 가능하다. 이외에 동력원의 차이에 따라 디젤식(D식)과 전동식(E식)으로 나누어 진다.

(3) 준설선의 구조

펌프준설선은 통상, 해저의 토사를 회전식의 커터(cutter)로 무너뜨려서 물과 함께 빨아 올려 배송하는 기구를 갖추고 있다.

펌프준설선의 기본적인 구조는 선체의 앞부분에 래더(ladder)가 있고, 래더선단에 커터가 부착되어 있다. 래더는 래더사에 매달려 있고, 래더에는 커터샤프트와 토사를 빨아 올리는 흡입관이 장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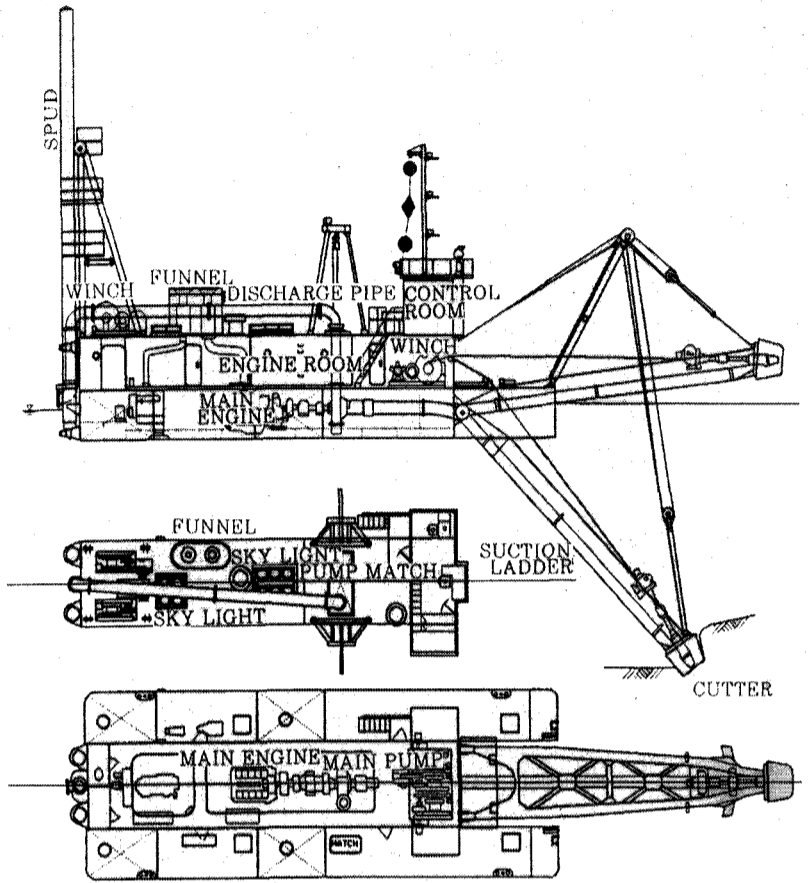


그림 2.2.1 펌프준설선의 구조

선체의 중앙에는 토사를 빨아 올려, 다시 그것을 뒷부분의 배송관으로 송출하기 위한 펌프와 그것을 움직이는 원동기가 있다. 또 뒤에 스파트(spat)라 불리는 2개

의 기둥이 있어 위치를 정하거나 이동이나 선회 등에 사용한다. 이들 모든 기구는 브리지(bridge)의 운전실에서 조작할 수 있게 되어 있다.

6. 무료결혼식 사업

상담소는 가정파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사업의 하나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는 동거 부부, 공장 지대의 미혼 남녀사원, 영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결혼식을 올려주고 있다. 결혼식을 올리기 위한 모든 준비는 주례를 비롯하여 신부화장, 식장 준비, 예물 준비, 축하반주 등이 총 222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무료로 결혼식을 원하는 사람은 상담소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접수 순서대로 매주 토요일 오전에 결혼식을 올려주게 된다.

7. 조사연구 및 출판 홍보 활동

가. 도서실 운영 : 가정, 아동, 법률, 여성, 인권관계 15,000여권의 도서와 국내외의 90여종의 정기간행물을 갖추고 있다.

나. '가정상담'지 발행 : 가정문화 창달과 여성여론을 위한 창구로서 창간되어 매월 15일에 발행되며 가정의 민주화와 여성의 인간화를 위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다. 기타 단행본 발행 : 상담사건을 분석한 상담 사례집을 매년 초에 발간하고

그밖에 가정문제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수집 조사 분석한 단행본을 부정기적으로 간행하고 있다.

8. 가족법 개정 운동

남녀를 차별하는 가족법이 존재하는 한 법률구조사업만으로는 역울한 피해자에게 완전한 구제책을 제시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상담소는 창립이래 가족법 개정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강연, 방송, 인쇄물을 통한 계몽 활동과 관계기관에 건의문, 호소문, 진정서, 청원서를 제출한 물론,

연극공연, 서명 운동, 각종 포스터 및 팸플릿 제작 배부, 국회의 원에게 편지 보내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족법 개정운동을 전개하여 1989년 12월 대폭적인 개정을 실현시켜 199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상담소는 89년 법개정에 서 제의된 규정과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법의 개정운동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다.

9. 국내외 지부 설치

법률구조사업의 확산을 위하여 추진해 온 지부설치사업은 국

내 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다. 1996년 10월 현재 국내에 29개 지역, 미국에 6개 지역(남가주, 씨애틀, 워싱턴 디씨, 뉴저지, 필라델피아, 오렌지 카운티)이 설치되어 있고 수년내에 전국의 법원, 검찰청이 있는 중소도시에게까지 50개의 지부를 확장할 계획이다.

10. 법률상담 실적

1956년 창립이래 40주년을 맞는 상담소는 가난하고 법을 모르는 약자에게 법을 가르쳐 주고 어려운 가정문제를 해결해 주고

자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1996년 9월 현재 법률상담 464,485건, 화해조정 2,888건, 무료대서 161건, 소송구조 262건을 상담 처리하였다.

11. 상담 안내

상담을 희망하는 사람은 상담소 1층 현관에서 번호표를 받은 다음, 4층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자기번호 순서가 되면 접수실에 들어가 간단한 내담자 조사서를 작성한 후 개별 상담실로 들어가 상담을 하면 된다.

- 상담시간
- 평일 : 오전 10시 ~ 오후 4시
- 토요일 : 오전 10시 ~ 오후 1시
- 야간상담 :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9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안내

가정문제 해결위해 끊임없이 노력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소 및 전화번호

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본 부	150-01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3	02)780-5688,89
강릉 지부	210-090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265 여성회관내	039)1647-3383
거제 지부	657-210	경남 장승포시 장승포동 291-41	055)8681-7860
광주 상담소	500-200	광주시 북구 유동 107-5 YWCA회관내	062)527-0011
군산 지부	573-041	전북 군산시 중앙로1가 9-5	065)442-1570
대구 지부	705-714	대구시 남구 대명동 2288 대구대학교내	053)621-6116
대전 상담소	302-735	대전시 서구 도마2동 439-6 배재대학 소월관	042)520-5258
마산 지부	630-470	경남 마산시 오동동 107-23 카톨릭문화회관내	055)144-8870
부산 상담소	601-013	부산시 동구 초량동 1158-7 YWCA회관 309호	051)469-2987
부천 지부	420-031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1동 403-1 서진프라자6층	032)326-0509
북부 지부	122-040	서울 은평구 불광동 393-2 살렘교회내	02)388-0303
성남 지부	461-140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4769 여성복지회관내	0342)731-5502
수원 지부	440-030	경기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6-11	0331)43-4600
신당동 지부	100-452	서울 중구 신당2동 402-9	02)238-6554
안동 지부	760-080	경북 안동시 삼상동 137-2	0571)56-4200
울산 지부	680-011	경남 울산시 남구 신정1동 646-1 울산시청내	052)69-9569
원주 지부	220-050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219-18	0371)731-4336

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익산 지부	570-170	전북 익산시 신동423-1 원광사회복지관내	0653)51-0265
인천 지부	402-200	인천시 남구 주안동 989-2 서해빌딩 5층	032)438-1114
전주 지부	560-18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664-55 전북여성회관	0652)77-2930
정읍 지부	580-070	전북 정읍시 연지동 21-2	0681)535-3705
제주 지부	690-170	제주시 연동 293-16 3층	064)44-2193
진주 지부	660-040	경남 진주시 북곡동 444-1 법화관의원 2층	0591)546-7988
청주 지부	360-012	충북 청주시 북문로2가 116-178	0431)57-0088
춘천 지부	200-092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711-18	0361)57-4688
태백 지부	235-050	강원도 태백시 연화동 122-2	0395)53-1003
목포 지부	530-353	전남 목포시 산정3동 1749 사회근로복지회관내	0631)73-2514
삼척 지부	245-010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한홍프라자 210호	0397)574-2266
동해 지부	240-010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962-26	0394)535-0188
남가주 지부		610 S. Harvard Blvd. #230 Los Angeles. CA. 90005	213)389-6755
오렌지카운티 지부		1055 Beach Blvd. Stanton CA. 90680	714)828-0195
워싱턴디씨 지부		10914 Georgia Avenue Wheaton Maryland 20902	301)949-5902
씨애틀 지부		302 N. 78th Street Seattle. WA 98103	206)784)5691
필라델피아 지부		1135 W. Cheltenham Ave. Suite 203 Melrose Park PA 19027	215)635-5158
뉴저지 지부		110 Main Street Fort Lee. NJ 07024	201)461-7313